<https://www.youtube.com/watch?v=J9sSYM4EP94> 請參考YouTube 影片練習

1. **젊어지는 샘물 （回春之泉）**

예날 옛적 꼬부린 할머리랑 쪼그랑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어요.

“거참, 어디서 이렇게 새가 울지?

아이쿠, 그물에 걸렸그나.

내가 꺼내주마. 자, 이제 됐다.

파랑새야 잘 가거라.”

며칠 뒤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데 어디선가 또 새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고마운 할아버지!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 와 보세요.”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 깊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어요.

“아이고 샘물이구나. 마침 목이 마른데 잘 됐다.”

“아, 시원하다. 기운이 불끈 나는 걸.

내가 왜 이렇게 젊어졌지?

와, 세상에, 이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젊은이가된 할아버지는 꼬부랑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할멈, 할멈! 나 왔어요, 나.”

“젊은이는 뉘시우?”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들려 주었답니다.

미침 이웃 역심쟁이 할아머지가 집 앞을 지나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뭐? 점ㄹ어지는 샘물이라고? 나도 어서 가서 마셔야겠다.”

“찾았다! 바로 이 샘물이로구먼.”

샘물을 찾아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한편 꼬부랑 할머니도 젊어진 쪼그랑 할아버지와 같이 샘물에 갔어요.

“여보, 여기 웬 갓난아기가 울고 있네요.

아가야 이리 온. 울지 말아라. 아이고, 울음 그치래도.”

“어디 나도 한 모금 먹어 볼까?”

“아이고, 이게 누구야? 고운 색시가 됐잖아!”

젊은 부부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https://www.youtube.com/watch?v=yOyJtDGDkXU> 請參考YouTube 影片練習

1. **삼 년 고개 （三年嶺）**

누구든 넘어지면 3년밖에 봇 산다는 삼 년 고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옷감 장수 할아버지는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삼 년 고개에서 잠깐 쉬게 되었어요.

“아이구, 다리야. 조금만 쉬었다 갈까?”

“내가 너무 잤나 보구먼.”

“아이구, 삼 년 고개에서 넘너지다니 이를 어째.”

“영감, 왜 그러시우?”

“할멈, 이제 어쩌면 좋소?”

할아버지가 삼년 고개에서 넘어진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밥도, 물도 안 먹고 누워서 시름시름 앓기만 했어요.

“먹어서 뭐 하겠소? 어차피 3년 밖에 못 살 텐데.”

“아이고, 영감.”

며칠 뒤, 이웃집 아이가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 어떤 방법이 있다는 말이냐?”

“삼 년 고개에서 한 번 더 점어지세요.”

“예끼, 이 녀석!

그러다가 이제 석 달밖에 봇 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을 사는 거지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네요, 영감!”

할아버지는 삼 년 고개를 한 달음에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한 번 넘어졌으니까 3년! 아이구! 한 번 더 넘어지면 6년!

아이구! 한 번 더 넘어지면 9년! 아이고! 12년! 15년, 18년, 21년!

열 번을 넘어지면 30년일세 그려.”

할아버지는 밝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할멈도 같이 갑시다. 그리고 한 백 년 더 살아볼까나? 얼씨구!”

**(끝)**

<https://www.youtube.com/watch?v=j5_0BaMNpqw> 請參考YouTube 影片練習

1. **개와 고양이 (狗和貓)**

어느 마을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난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하루는 강에 나갔다가 어부에게 잡힌 잉어를 봤어요.

“아이고, 가여워라. 눈물을 흘리네.”

마음 착한 할머니는 돈을 털어 잉어를 산 뒤 강에 놓아 주었어요.

그러자 강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나더니, 한 아이가 나와 말했어요.

“할머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은혜로 이 용궁 구슬을 드릴게요.”

알고 보니, 놓아준 잉어는 용왕님의 아들이었어요.

용왕님의 아들이 준 용궁 구슬은 참 신기했어요.

쓰윽 비비며 “집!”하고 말하면 집이 생기고 쓰윽 비비며 “쌀!”하고 말하면 쌀이 생겼어요. 용궁 구슬 덕분에 할머니네 집은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여기 그렇게 신기한 구슬이 있다면서요? 그 구슬 좀 보여줘요.”

“아이고, 구슬 참 예쁘네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몰래 용궁 구슬을 가짜 구슬과 슬쩍 바꿔놓고 달아났어요.

용궁 구슬이 없어지자 할머니는 예전처럼 다시 가난해졌어요.

“멍멍! 그 못된 할머니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야옹, 우리가 찾으러 가자! 야옹.”

개는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헛간에 들어가 우 두머리 쥐를 붙잡고 말했어요.

“구슬을 가져 오지 않으면 모두 잡아먹을 테다!”

쥐들은 뿔뿔이 흩어져 할머니 집을 뒤져 구슬을 찾아 왔어요.

“멍멍! 우리가 구슬을 찾았어!”

“야옹, 어서 가서 할머니께 전해 드리자!”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개에게 업혀 다시 강을 건넜어요.

한참 강을 건너던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고양이야, 구슬 잘 물고 있지? 구슬 잘 물고 있어?

고양이야, 왜 대답 안 해?” “잘 물고 있어.”

풍덩! 그 바람에 그만 구슬이 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까짓 구슬! 알게 뭐야! 멍멍!”

개는 툴툴 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양이는 날이 저물도록 강가를 서성이다 물에 떠밀려온 물고기를 덥석 물었어요.

“야옹, 마침 배도 고픈데 잘됐다!”

고양이가 물고기를 한입 꽉 물자, 물고기 배에서 용궁 구슬이 툭 튀어 나왔어요.

고양이 덕분에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구슬을 찾아 준 고양이를 집 안에서 길렀어요.

그 뒤로 고야이는 집 안에서, 개는 집 밖에서 살며 서로 으르렁거린답니다.

**(끝)**